

정치사의 관점에서 본 중국과 일본의 창조신화 및 건국신화

20200422 이수빈

중국의 창조신화는 태초의 상황을 혼돈 상태로 상상한다. 그리고 두 명의 신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음과 양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 만물을 창조했으며, 음양 중간의 조화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음과 양의 이분법적 구분은 이후 종교와 통치 체제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특히 후대에 성립되는 유교가 대표적인 예이며, 유교는 고대국가 때부터 실행됐던 덕치가 종교적,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형태이다. 창조신화에도 이러한 중국의 문화 요소가 녹아 있는 것이다.

중국 건국신화의 주인공은 '삼황오제'이다. 먼저, '삼황'에는 신농씨, 복희씨, 여와씨가 있다. 신농씨는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다. 복희씨와 여와씨는 인류에게 문자, 불, 그리고 혼인제도를 알려 준다. 즉 삼황은 모두 당시 인류 개인 및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사회적 필수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삼황의 신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문명이 신적인 존재로부터 전수받은 특별한 것이며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농사의 발명, 불의 발견과 같은 요소들은 신화의 시대적 배경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것을 말해주며, 문자의 사용과 혼인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로, 청동기 때 이르러 고대국가가 성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설상 중국 최초의 고대국가인 '하 왕조'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중국 최초의 고대국가인 '상 왕조'에 대한 전설이 전해진다.

다음으로, '오제'에는 황제, 전욱, 제국, 요, 순이 있다. 황제는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군주이자 여러 문물의 창시자로서 그 위대함을 드러내며, 황제와 관련된 전설을 통해 권력의 정통성이 확립된다. 전욱과 제국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요, 순은 덕치의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왕으로 추앙받는 군주이다. 제위의 계승 방식으로 세습이 아닌 선양을 채택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 초기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신화이기 때문에 최초로 등장한 고대국가의 운영 방식을 암시한다. 따라서 오제 신화는 모두 당시 지배층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으며, 권위 및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였다.

일본의 창조신화는 남신과 여신이 다른 한 신을 중심축으로 결혼하여 일본 국토를 창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 이후 태양, 달, 바람, 나무, 산 등 여러 자연계의 신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일본의 국토와 모든 자연현상이 신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별함과 신비성을 부여한다. 그 다음부터는 문화에 관한 여러 신들이 탄생한다. 배, 곡물, 불, 물 등의 신들이 나타났는데, 이 창조신화가 신토의 유래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맥락은 비슷하다. 신토 또한 자연과 신을 하나로 보며, 세상 만물 각각에 모두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들을 모시는 일본 토착 민속 종교이기 때문이다. 신화의 뒷부분에서는 여신이 불의 신을 낳을 때 입은 화상 때문에 목숨을 잃으며 세계 최초의 '죽음'이 발생하고, 여신과 남신의 말싸움으로 인해 매일 죽음과 새 생명의 탄생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신화는 이후 인간들의 생식적 기능과 죽음을 당연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이후 이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벼농사의 신 등 문명의 발전을 암시하는 신들도 등장한다.

일본의 건국신화 역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진무천황의 동방 정벌 이야기로, 선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전제와 함께 신의 은혜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진무천황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다. 선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전제는 일본 민족 자체의 특별함과 정통성을 부각시킨다. 천도 과정에서 진무천황은 위기에 빠지지만 초월적인 힘으로 극복하여 결국 동방 정벌에 성공하고 일본 열도 전체를 장악한다. 신적인 능력으로 국가를 건국하는 신화는 후대 일본인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진무천황에서부터 성립된 권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신화 모두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당시 시대상이 매우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분하며, 그러한 신화가 만들어진 목적은 국민성 강화 및 지배 정당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창조신화와 건국신화는 중앙집권체제를 성립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고, 고대국가 성립의 기본적인 요소였다.